

“김치는 소울푸드”...미국 연방 의회에서 쏟아진 ‘김치 찬사’

의회도서관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통과 촉구 행사
결의안 참여한 10여명 의원 참석...김치 전시·김장 시연

“김치는 우리의 소울 푸드(soul food)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이 내려다보이는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이 6일(현지시간) 낮 김치 냄새로 뒤덮였다.
과거에 하원의원 전용 열람실로 사용했던 2층 펠버스룸에서, 연방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린 것이다.
깊숙한 직사각형 모양의 행사장 초입에는 맛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포기김치 등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이 놓였다.
그 옆으로는 배추, 고춧가루, 굵은 소금과 까나리액젓, 생강 등 김치를 담글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 깔렸다.
한쪽에서는 즉석에서 곁절이김치를 담그는 시연도 진행됐다.
행사장 가운데 마련된 연단에서는 지난 7월 하원에 발의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 참여한 하원의원들의 ‘김치 찬사’와 ‘김치 데이(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미국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경제 코커스 의장인 주디 추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김치의 날 지정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김치의 인기를 조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에 대한 공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등 많은 주가 이미 김치의 날을 지정했으며 이제 미국이 따라갈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김치를 함께 먹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도서관 앞에서 직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냐’고 물었을 때 바로 김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김치 냄새를 따라가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는 우리나라와 공동체, 유산의 일부이며 이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도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고양하고 우리가 미국인으로 이 나라에 속해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김치 데이’ 행사장에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김치 제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의원(민주·워싱턴)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집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이제 미국 내 모든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찾을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김치의 진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것은 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과 우리 문화, 역사,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는 것을 평가하고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캐롤린 멀로니 하원의원(민주·뉴욕)은 “김치가 한국의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고추장 등 다른 한국 요

리와 함께 김치는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김치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같이 주최한 미주한인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도 축하사에서 “김치는 우리의 소울 푸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브레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팅(민주·뉴욕), 영 김

(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등 10여 명의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가 끝난 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김치 요리를 즐겼다.
테이블에는 김치전과 김치 스킨케이크, 김치만두, 갈비 등이 놓여 있었다.
이번 행사는 연방 의회에서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을 환기하고 미국 내 김치 판촉 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멀로니 의원은 지난 7월 ‘11월 22일’을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멀로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하키 제프리스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다만 결의안은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이번 의회로 임기가 끝나는 멀로니 의원은 제프리스 의원 등을 거론하면서 “결의안을 지지하는 강한 리더십 그룹이 있다”면서 “우리는 통과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방미 중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국회 대표단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우크라 드론에 본토 타격 ‘허 찢린’ 러...“군사시설 취약 노출”

러, 장거리 타격에 충격...전쟁 지지충조차 “군 수뇌 무능”

우크라이나가 최근 잇따른 장거리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는 데에 성공,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시켰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는 최근 헤르손 등 점령지 상당 부분에서 퇴각하는가 하면, 미사일 고갈 정황마저 보이며 여러 측면에서 장기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키우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주의 군용 비행장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각각 480km, 720km 떨어진 러시아 내륙 도시 라잔과 옐겐스의 비행장이 공습당했다. 특히 라잔에서는 군인 최소 3명이 숨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제 제트엔진 드론으로 공격해왔으며 장거리 항거리 무력화를 노린 ‘테러’라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설계한 Tu-141 스트리스(Strizh) 무인정찰기 일부를 넘겨받았는데, 사거리가 1천km 이상이며 미사일 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격을 통해 러시아의 중요 군사시설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AP는 전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적으로 가장 심대한 방어 실패 사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간 자국의 드론 공격을 공식화하지 않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비행장 폭발과 관련해서는 은연중에 작전 수행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분위기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번 드론 공격에 대해 “러시아 사람들은 종종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농담하며 즉답을 피했다.
유리 이그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군의 날인 6일(현지시간) 동부 도네츠크주 솔로반스크 인근에서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은 “불가사위한 폭발로 러시아 항공 장비가 훼손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비행기가 고장나면서 그들의 역량도 줄어들 것이다. 아주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우크라이나 국군의 날을 맞아 동부 도네츠크 최전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군을 우리 영토 전역에서 몰아내겠

다”고 약속하며 기세를 올렸다.
러시아에서도 이번 본토 타격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옐겐스 비행장의 경우 Tu-95, Tu-160 등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보유한 거점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향후 러시아군의 군사작전 운용 폭이 제한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연합뉴스

자메이카, 갱단과 전쟁... 살인 급증에 비상사태 선언

중미 국가 자메이카 정부가 갱단의 폭력으로 살인사건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급증하자 6일(현지시간) 자국 상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앤드루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수도 킹스턴 내 특정 지구와 전국 14개 행정구 중 6곳에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영장 없는 체포와 건물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실제 이날 킹스턴 곳곳에는 중무장 병력이 배치돼 행인들을 검문하거나, 주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AP 통신은 우범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부 지구는 이런 조치를 환영했지만 여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도 경찰의 권력남용으로 무고한 이들에게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홀니스 총리는 인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비난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 자메이카 국민들은 침대 밑에 숨고 딸을 숨기고 교회도 가지 못

하면서, 아들과 남자 친구, 남편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280만명의 섬나라인 자메이카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천421명이 피살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 희생자(1천375명)를 넘어선 것이다.
자메이카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미국 시카고시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 사망자는 643명에 불과하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자메이카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 태반은 현지 주요 정당과 연계된 갱단들의 소행이다. 이들은 갈취와 마약거래, 복권사기 등으로 활동자금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메이카 정부는 최근 수년 사이 여러 차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관련 당국은 비상사태 기간 살인사건 발생이 평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판 없이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구금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자메이카 대법원이 이러한 행태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풍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